

부활 제 2 주일

기도서 283면 (B해)

제1독서: 사 도 4, 32-35

제2독서: I 요한 5, 1-6

복 음: 요 한 20, 19-31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요한 20, 19).

□ 강론



왜곡되어진 죽음

박 창 신 신부

예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은 야훼께서 행하신 큰 역사였고 인류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역사가 흐름에 따라 시대 여건에 따라 왜곡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훼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전혀 생각치 않은 데서 오는 왜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무시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외로움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에 시달렸고 특히 로마의 학정에 고통을 당하는 수난의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헤로데 가문은 남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만명의 양민을, 또 저항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빌라도는 역시 안보신경 질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감시했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진자 율법학자 사제들은 민족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을 억압하고 생존권을 빼앗는데 앞장섰던 기독교 배척으로 변절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병들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정의로운 하느님의 지배를 선포하셨습니다. 루가는 더욱 구체적으로 주의 성령이 내리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은총의 해(루가 4, 16~19)를 선포하십니다. 회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탕감하며 서로 해방을 주며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외세를 배척(마태오 9, 28~34) 하시고, 성전에서 성전 귀족과 결탁된 장사치를 후려치십니다. 이들은 유대교 안에서 제일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백성을 억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억압받고 생존권을 잃은 소외된 보잘것 없는 자(민중)들편에 서시었고 기독교자들은 예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되지 않은 나라는 기독교자들이 민중을 억압합니다. 자기 기독교 유지를 위해 주인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언론을 독점하며 모든 재화도 독점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언비어 단속으로 입을 막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민중의 권리를 말살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들을 감옥에 넣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 권자와 아합하든지, 방관자가 될 때 억압과 독점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왜곡할 것입니다. 왜곡된 죽음은 개인 신앙, 기복신앙, 이원론적 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다. (중화산동 천주교회)



총선 유감(1)

때는 바야흐로 자칭 타칭의 애국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을 보이고 있는 선거철이다. 한국 민주화의 사활이 달려있는데도, 벌써부터 분위기는 반칙일색이어서, 거리는 온통 울긋불긋한 벽보로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신문지 벽보가 나뭇고 지게에 스피커를 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던 때는 그래도 낭만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거철이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언론은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서술이 떠난 때라도 감옥행을 각오하며 하는 유세가 바로 그것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술렁이 더진 때라서 더욱 그러하다. 참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어찌도 그리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제는 잡지의 기사 제목들만 보아도 흥미진진하기 이를 데 없다. 역시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게 마련인가 보다.

차제에 한했된 「광주의기」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는 성격규정이나 「유감」이라는 정부당국의 사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전 재산을 환수하여 우선적으로 그걸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항상 어정쩡하게 넘어가고만 우리의 역사가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요모양 요팔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벌써부터 관계개입이 판을 치는 선거분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전에도 그러해 왔는데, 누가 하면 어쩔라고...” 하는 따위의 맘종은(?) 물렁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기뻐할 때, 우리는 아직도 더 노예처럼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순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현 정권은 진정 민주화의 의지가 있는가?

6공화국은 정통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5공화국과 텃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6·29 민주화 선언이나 6공화국 벽두에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화 공약 역시 깊은 신뢰를 둘 수 없다. 천명이 넘는 정치범 내지 양심수는 아직도 수감된 상태이며 정권안보의 사병인 전투경찰은 오히려 2만여명이나 더 증원되었다. 5·18 광주사건의 정의로운 처리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명백한 수사,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의 척결' 등은 6공화국 자신의 뿌리를 뽑는 작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5시경 전북은행 본점 근처에서 자행된 이수현·김진화 신부의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차피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 정권의 정체와 실체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현 정권의 민주화 선언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현 정권은 폭력을 두둔하는 폭력정권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공개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회신을 촉구하며 교구 전 사제단과 10만 평신도의 의연한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1988. 4. 5.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록 원
숯불갈비·냉면·양구이
전 문
전화 84-4181
서호진(프란치스코)
안팎자(루시아)
명동여관—조상래의과 중간

서법석 한의원
원장 서법석(팔베)
위치 : 대학교앞 덕진성당옆
주소 :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 72-2665 · 75-3533

파티마 회관
불고기 전문
(탕) 비빔밥 전문
연회석 완비
조 절 선(시 문)
장 금 희(테레사)
☎ 82-1409
효자동 1가 195-14

종합화장품 할인코너
중 앙 화 장 품
백 화 점
결혼선물세트 특별우대
전주시 중앙성당 옆
(구 한일생크)
전화 4-0841
임 막달레나(영자)

교 구 소 식

1. 사제평의회 :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교구청
2. 교구 혼인법원 : 12일 (화)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3. 세계 성체대회를 위한 성직자·수도자·평협임원 연수회 :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강사-강우일 주교·장익 신부
4. 성소자 신학교 방문 : 17일 (일), 장소-광주 가톨릭대학 살레시오 수도원
대상-중·교·대·일반, 회비-2천원 (점심제공), 집결-오전 9시, 가톨릭센터
5. ①휠플라레운동 안에서의 사제피정 : 4월 11일~13일, 장소-솔피
②휠플라레운동 안에서의 수도자 피정 : 4월 11일 10시~12일 오후 4시,
장소-서울 한남동 폰베두알 프란치스코 회관, 문의-임실천주교회 박인호 신부
③휠플라레 어머니 켄모임 : 매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④휠플라레 수도자모임 : 매월 첫주·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6. 전통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구리아 : 10일 오후 1시 30분
장소-노송천주교회, 단장·부단장 임원개편 있음
7. 자연 가족계획 교육 : 12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8. 해외에서 수고하신 이태주·전대복·정태현 세 분 신부님께서 귀국하시어 본당으로 부
임하셨습니다
9. 김의철 신부님께서 군중사목을 위해 4월 16일에 입대하십니다 : 많은 기도바랍니다

♣ 잡 간

한식(寒食) 날에...

성묘들은 다녀 오셨는지요? 이 한식은 중국 춘추시대의 개자추라는 절개 굳은 사람이, 왕이 주는 벼슬을 마다하고 산으로 피했는데 산에 불을 질러 나오게 하려 했으나 끝내 그 불에 타죽고 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날부터 삼일간을 찬밥(寒食)을 먹으며 조상의 산소를 찾은 데에서 비롯한다고 합니다. 개자추! 그의 몸은 사나운 불길에 삼켜졌지만, 그러나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한식을 맞는 사람들마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식이 되어 성묘를 가는 사람들 마다의 귀에 그의 삶이 전해질 것이고 전해진 그 삶은 또 새로운 삶을 잉태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통하여 밝혀진 진실은 또다른 진실을 낳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한식이 개자추의 죽음을 기념하여 전해진 날이라 하면 미사는 2천여년 전, 하느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나자렛 사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아니, 기념하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여 아직도 살아계신 그 분이 실제로 자신의 삶과 피를 우리의 '밥'과 '송충'으로 오시는 순간 순간들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듯이 우리 신자들은 밥과 송충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갑니다.

매·미사 때마다 우리의 '밥'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 귀하신 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다음 성서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해 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밧로 그것을 짓밟고.....”(마태 7, 6).


요심이 (766) 김병오

유권자 무더기 전업으로
민정당 공천자
26명의 집에 52명만 주




1평에 2명씩
살아야 한다는
게산이 나오니...


기가 막혀!



그집은 식당에서도 자야하고
목욕탕에서도 자야하고
화장실에서 밤도
먹어야 하고...



안방에서 부부간에 자지 못하고
임주자들하고 같이 자야 하니...



□ 1분 명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13, 8)

명동피부과의원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자격 :
휴게실 : 신심이 돈독한 여성 ○명 (교졸이상자)
청소 : 신심이 돈독한 여성 ○명 (학력제한 없음)
2.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사진첨부)
3. 제출마감 : 4월 13일까지
가톨릭센터 (85-0041~3)
관리국장 김병운 신부

국가자격 조화 기능사(Art Flower)

—현대는 자격증 시대—

조화 수강생 모집

한국 수조화 작가협회 전북지부

전화 86-3 660

민 속 임 (마리아)



배우자를 찾습니다.

본인은 30세의 약간의 언어 장애자입니다. 도자기 기술을 취득 월 30만원 봉급

이 름 : 점 동 수 (요한)

연락처 : 전주시 교동 1가 155

전화 84-0159

이 리 지 구 본 당 소 식

(송학동)

주임신부: 이태주
사목회장: 오봉익

차주전례: 해설-김정남, 독서-①신상진 ②김명선
기도및봉헌-최종대씨 가정

□ 지난주 봉헌금: 947,190원

◎ 본당신축을 위한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들...

1. 예언자모후 꾸리아 아치에스행사: 17일 오후 2시
보고사항: 1년·5년·10년·15년·20년 근속자 모범단원
1명-4월13일까지 사무실에
2. 레지오 단장회의: 미사후(소성당에서)
3. 사무장 채용: 이력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사무실에 제출
4. 본당운영을 위하여 교무금 미신입세대: 신입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매월초 납부
5. 금주전례: 해설-김명희, 독서-①서원기 ②최정원
기도-오봉익 부부

차주전례: 해설-오봉익, 독서-①이재길 ②김보영
기도-모현1구

□ 지난주 봉헌금: 245,810원

(신동)

임시사제관 54-7427 주임신부 박종삼
임시수녀원 54-6313 사목회장 최학열
사무실 54-1827

1. 예비자교리에 기도와 관심들... 7월 영세반-매주 일
요일 공식미사후(본당신부님 교리)
2. 꾸리아 월례회: 오후 2시 소성당에서
3. 감사: 가정용 미사셋트 가방-이은주 50만원(창인동
교우), 제대꽃 봉헌-익명(2만원)
4. 지속적인 철야 성체조배: 15일 저녁미사후부터
(계시관 참조)
5. 사제양성 돼지저금통 봉헌: 24일 성소주일까지
6. 축! 결혼: 12일 정오 12시
신랑-이영호(도미니코), 신부-윤호순(안나)
17일 정오 12시
신랑-김주영(요셉), 신부-정경숙(로사)
7. 성가연습: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8. 청소담당: 남중-2·3구(11일), 구세주의모친(14일)
9. 가톨릭신문 1부는 한사람의 전교사: 각 가정마다
1부씩 구독(1개월 구독료-1,800원, 6개월 신불-
9,000원, 1년 신불-18,000원)
10. 다음주는 애령의날: 애령회비 납부에 정성을...
11. 복사단 모집: 내상-국교생(4~6학년)
첫영성체한 어린이
12. 금주전례: 해설-(공식)이정명, 저녁-노대식
독서-①김용만 ②백운옥, 봉헌-박대근·입현숙부부
기도-박순자·박정희 자매
차주전례: 해설-(공식)이희식, 저녁-김봉건
독서-①김학현 ②전준섭, 봉헌-박영·정화숙부부
기도-안근자·강효녀 자매

□ 지난주 봉헌금: 851,675원

(영등동)

사제관 54-2202 주임신부 안복진
사무실 52-2240 사목회장 송상섭

1. 꾸리아 월례회: 금일 공식미사후-소성당
2. 아치에스행사: 금일 오후 2시-성당
3. 성모회 월례회: 차주 공식미사후-소성당
4. 사제양성후원 돼지저금통 금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
기 바랍니다
5. 창인동본당 이은주(베로니카) 50만원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 금주청소: 바다의별pr(11일), 능하신정녀pr(16일)
7. 금주전례: 해설-민칠기, 독서-①박종대 ②김용평
기도및봉헌-이성체씨 가정

(주현동)

사제관 54-9030 주임신부 범영배
사무실 2-3993 사목회장 김한기
수녀원

- ◎ 본당 20주년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 사제양성후원 돼지저금통 봉헌: 오늘 공식미사배
 - ◎ 원장수녀님 휴가: 11일~23일
 1. 금주성서: 여호수아 3,1~17 히브리서 10,1~39
 2. 설모회·35회 형제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초·중·고 후원회: 오늘 오후 2시
 4. 구역형제회 1조: 13일 오후 7시30분-동산2·4·5구,
평화1구, 인화3구, 부용, 금강동, 대장촌, 시전, 갈
산동은 월요일, 동산1구는 10일 오후 3시, 구역미사
-동산4구(본당미사-오전 9시)
 5. 성심회원 모집: 50세~65세
 6.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성바오로회·성우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7. 금주전례: 해설-노광숙, 독서-①김화곤 ②장춘애
봉사-이완수 부부, 기도-송순안
차주전례: 해설-송기룡, 독서-①박신근 ②장영희
봉사-조평근 부부, 기도-조기순
 8. 금주청소: 11일 오전 9시-평화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735,205원 교무금: 456,710원
20주년 특별헌금: 680,000원

(창인동)

사제관 52-9073 주임신부 문정협
사무실 2-2325 보좌신부 이 동 훈
유치원 2-1028 사목회장 김은홍

- ◎ 사목회장 임명: 김은홍
우측식 회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 셋별 꾸리아: 공식미사후
 2. 성실하신 동정녀 꾸리아 아치에스행사: 오후 2시
 3. 치명자모후 꼬미시움, 셋별꾸리아 아치에스: 다음주
오후 2시-행동단원·협조단원 참석
보고사항-1년 개근·5년·10년·15년·20년 모범단원
1명-13일까지 사무실에
 4. 가정방문: 매주 화·목요일(방문대상-예비자·맹담교
우·불방문 실시 못한 가정)
구역장님께서는 사진 파악바랍니다
창인1구-12일, 창인2구-14일
 5. 성령기도회: 15일-저녁미사후
 6. 베소라성서 강의: 14일 오전 10시~12시까지
 7. 예비자교리 안내
김배사 원장수녀님반-매주 공식미사후
보좌신부님반-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이말가리다 수녀님반-매주 토요일 오후 4시(학생)
 8. 구역형제회 실시일정 계획 사무실과 협조바랍니다
형제회 실시에 신부님·수녀님 참석계획
 9. 신심단체가입 활동을 권고합니다: 문의-사무실
 10. 청소담당: 창인2구-11일, 학생회-16일
 11. 금주전례: 해설-최병식, 독서-①서장경 ②우춘식
기도-남중5구
차주전례: 해설-신명국, 독서-①채인석 ②차계천
기도-남중6구(박종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94,140원(전야-616,230원)
교무금: 150,000원